

진안군, 인구정책 추진 빛났다 어린이날 태권도원 이벤트 풍성

전년 대비 31명 증가... 군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속 추진 결과

진안군은 2일 적은 수이지만 인구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4월 말 기준 전년 24,465명에서 올해 24,496명으로 인구가 31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전체인구의 약 39%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고 있어 매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진안군은 인구 증가의 원인을 귀농 귀촌 인구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귀농·귀촌 인구이다.

진안군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촌유학 프로그램, 귀농·귀촌 지원, 주거 복지 지원 등과 함께 정주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신에서 대학 교육까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2,900만원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한 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농어업



전춘성 진안군수가 청소년문화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 평가에서 상위 20%안에 드는 최상위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환경 안전 영역에서는 군지역 전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인구 유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진안군이 가진 고원지대의 청정한 자연 환경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무기로 한 산림·치유·관광산업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대에 더욱 힘을 계획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료입장·상설공연 증회·태린이 페스티벌 등 운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어린이날 '태권도원 무료입장'과 '태린이 페스티벌' 개최를 비롯해 '국립태권도박물관', '체험관 YAP' 등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며 어린이날 방문객을 맞이한다.

5일 어린이날 당일 태권도원 입장료가 무료다. 특히 5일은 인기 콘서트인 '태권도원 상설공연'을 기존 2회(11시, 오후 2시)에서 11시와 오후 2시, 4시 등 3회로 확대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공연장으로 초대한다. 상설공연 관람 후에는 공연단원들과 '기념촬영',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에는 태권도원 TI 경기장 광장에서 '태린이 페스티벌'이 열린다. 격파와 버블 등의 체험 부스를 비롯해 'MC를 이겨라', '태권도원 OX 퀴즈' 등의 이벤트와 마술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어린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기구까지 설치되는 등 신나는 놀이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활동지 체험 이벤트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물관을 관람 후 활동지를 풀 어린이에게 태권도원 캐릭터인 태랑과 진진이 그려진 '퍼즐'을 1일 140명 선착순으로 선물하고, 태권도 카키비움



태린이 페스티벌 포스터

을 이용한 모습을 SNS에 게시한 관람객에게는 기념엽서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체험관 YAP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표 점수 달성' 이벤트를 진행한다. 태권도 체험실에서는 백 점 이상 달성시, VR·AR 체험실에는 3천점 이상 달성 시 '진진 응원봉'을 증정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국 관광 100선 태권도원을 찾아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내기 바란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태권도원을 방문한 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생각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의치매예방관리로 치매 예방 긍정적 평가

장수군 치매안심센터, 인지기능 개선·중증화 예방 위해 5년째 시행

장수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 5년째를 맞는 장수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관내 60세 이상 등록된 치매 환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한의치매예방관리를 통한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개선과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매년 높은 사업 효과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자는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에게 한의 치료가 유효함을 역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무주군 봉축 연등탑 점등식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무주군 봉축 연등탑 점등식이 2일 군청 광장 분수대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다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일 봉축위원

장(원봉사 주지) 등 지역 내 사찰의 주지 스님과 불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점등과 탑돌이 등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가 밝힐 연등의 온화한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온 마을을 겨우나 주기를 바라며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무주를 찾는 이들에게

기쁨을, 경쟁력이 필요한 지역엔 희망을 안겨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4년을 밝히려는 연등탑이 5월 무주의 상징이자 불거리가 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군청 광장에 설치된 높이 9m, 둘레 24m 규모의 탑에는 1,100개의 연등이 설치됐으며, 오는 6월 10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년 연속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대상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2024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선발에서 대상에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세외수입 운영 종합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 과태료 징수율, 체납액 정리실적,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8개 지표를 평가한다. 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군은 지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과 징수가 불기능

한 납부자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높이는 한편 세외수입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번 수상으로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7백만원이 확보됐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대상 선정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군이 세외수입 운영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외수입 운영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냉방기 사전 점검 실시

무주군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무주읍 다량마을회관 등 6개 읍면 125곳에 대한 시설 및 기기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난방재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자율방재단과 냉방기 전문가 등이 함께 시설을 방문해

냉방기 필터 청소와 냉매제 충전 상태, 정상 작동, 무더위쉼터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이외에도 그늘막·쿨링포그시스템을 운영, 삼수차 운행과 폭염 관련 안전 수칙을 공유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주말 직거래 장터 운영

진안군은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와 더불어 관내 생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전주 호성동 동부대로 930)에서 주말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주말 직거래 장터는 오는 4일 개장해 11월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 예정이며 작년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2천차 사업비(국비 1,800만원)를 활용해 진행된다.

특히 가정의 달, 휴가철, 추석 명절과 같은 특별 시즌에는 특별 직거래 장터로 개최될 예정으로 사과, 표고버섯, 고구마, 더덕 등 청정원에서 자란 신선한 농산품과 토종꿀, 사과즙 등 지역 농산품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과 같이 진안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진안휴게지 시식, 진안고원 과일을 이용한 화제만들기, 임산물들 활용한 요리 시연, 등 랭지 배후로 담은 김장체험 등 진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해 도시소비자와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청년캠프 진행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농업입문 과정 청년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청년캠프에는 진안군에 귀농·귀촌하기를 희망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전국의 45세 이하 청년 5명이 참여한다.

캠프 참가자들은 농업기술센터 답방을 통해 청년 지원정책과 행정서비스 등을 안내받고 직접 농기계를 운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진안군 지역의 청년 농장을 방문해 농사를 경험하고 청년 농업경영인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캠프가 진행되는 '청년 with 풀밭집'은 귀농 또는 귀촌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발굴하는 공간이다. /진안=우태만 기자